

- 주요 뉴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협할 우려
 - 미국 재무장관, 코로나 19 해결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핵심
 -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 반응은 불필요
 - COP26 폐막,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합의. 중국과 인도는 소극적 자세 유지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주중반 이후 위험자산 선호가 다소 회복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며 주중 낙폭을 대부분 만회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조기 통화긴축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1%,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월 소비자물가 급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5% 하락, 한국 CDS 보합

		11/12일	11/5일	전주말대비			11/12일	11/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682.9	4,697.5	-0.31%	국채 금리 10y	미국	1.56%	1.45%	11bp
	유럽	486.75	483.44	0.68%		독일	-0.26%	-0.28%	2bp
	중국	3,539.1	3,491.6	1.36%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610	29,612	-0.01%		중국	52bp	50bp	2bp
	한국	2,968.8	2,969.3	-0.02%	위험 지표	EMBI+	371	380	-9bp
환율	달러지수	95.13	94.32	0.86%		VIX	16.29	16.48	-1.15%
	유로화	1.1445	1.1567	-1.05%		WTI유	80.79	81.27	-0.59%
	엔화	113.89	113.41	-0.42%	원자재	구리	445.0	434.3	2.45%
	위안화	6.3797	6.3988	0.30%		금	1,864.9	1,818.4	2.56%
	원화	1,179.6	1,185.2	0.4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협할 우려

- 팬데믹 이후 중국 경기는 V자형 회복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시장 예상보다 빠른 둔화의 신호를 발신. 부동산 가격 하락, 제조업 활동 및 소비심리의 부진, 당국의 소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등이 성장 모멘텀에 부정적으로 작용
- 성장률은 금년에 정부 목표(8%) 달성이 가능할 전망. 그러나 내년에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5% 하회를 제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10월 소매매출,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등이 경기둔화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것으로 관측
- 당국의 적극적인 코로나 19 억제 대책도 가계소비 위축을 초래할 소지. 오랫동안 전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글로벌 경기는 국가 간 불균형, 회복 모멘텀 약화 등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코로나 19 해결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핵심

- 옐런 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 19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코로나 19 종식이 중요하다고 부연.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진단. 팬데믹 통제가 가능할 때 노동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노동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보육 관련 근로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
-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사회보장기후대응 법안(1.75조달러 규모)이 보육 관련 비용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또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징수 확대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

■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 반응은 불필요

- 카슈카리 총재는 가계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과도하게 빠른 통화긴축 전환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는 적절하다고 평가

■ 미국 뉴욕 연은, 테이퍼링을 반영한 11월 자산매입 계획을 발표

- 11월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각각 700억, 350억달러 매입하고, 12월 중순에는 각각 600억, 300억달러로 매입 규모를 줄일 예정. 11월 자산매입은 11/15일 시작 예상

■ 미국 정부, 일본과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의를 시작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세계적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라고 발표. 최근 일본은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발동한 관세조치의 철회를 요청

■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2023년 금리인상 예상. 자사의 CEO와 이견

- Andrew Sheets 등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중반 테이퍼링이 종료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초에 시작할 것으로 전망. 한편 모건 스탠리의 고먼 회장은 금리인상 시기로 내년 1/4분기를 제시

■ 로이터 설문조사, 영란은행이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 47명의 참여자 가운데 21명은 영란은행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5%p 인상할 것으로 예상. Jefferies의 Marchel Alexandrovich는 12월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이 양호하면 같은 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분석

■ COP26 폐막,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합의. 중국과 인도는 소극적 자세 유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조약'에 해당 내용 이외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문구를 포함. 또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도 약속
- 그러나 중국, 인도의 저항으로 석탄발전 중단 합의에는 실패. 다만 2025년까지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2배 확충 및 기술이전 대폭 강화를 추진하기로 약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 유로존 9월 무역수지, 일본 3/4분기 성장률, 9월 산업생산
- 중국 10월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소매매출, 주택가격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 - Financial Times**
(The Fed must abandon average inflation targeting)
 - 지난해 연준은 기존 인플레이션 목표(2%)의 일정 기간 초과 달성을 용인하는 AIT를 채택.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해당 목표의 기간 및 해석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피력. 이에 상당 기간 불필요한 초과 인플레이션 발생이 가능
 - 물가 목표를 제시하는 AIT보다는 자산의 기대수익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이 중요. 또한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상황에서는 의도적 목표물가 달성 노력이 물가 급등을 유도할 소지
 - 상당 기간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션 유지를 정당화시키는 AIT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 **2022년 원유 시장, OPEC의 예측 오류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소지 - 블룸버그**
(OPEC's Fears of an Oil Glut Are Built on Faulty Forecasts)
 - OPEC+는 내년 초 공급 과잉에 따른 전세계 재고 증가를 예상하여 기존의 점진적인 증산 방침을 고수. 그러나 지난 주 OPEC+에 제출된 원유 공급 전망은 지나치게 높게 추정되었으며, 이에 내년 원유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소지
 - 해당 전망들은 OPEC이 기존 증산 합의만큼 생산한다는 것을 가정. 그러나 9월에 일부 회원국이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며 원유 생산은 일일 목표치를 하회. 또한 나이지리아 등의 투자 부족 등으로 공급 부족이 증폭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국채시장의 낮은 실질금리,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를 촉진 - WSJ**
(Inflation Surge Whips Up Market Froth)
-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캐리 트레이드 감소로 신흥국 통화가치에 부정적 - 블룸버그**
(Inflation Is Killing the Dollar Carry Trade in Emerging Markets)
- **COP26 합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전망 - Financial Times**
(COP26 global carbon market rules pave way for emissions credits boom)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